

“군산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내달 15일부터 3일간
시간여행축제 개최
야간 프로그램 신설 등
불거리·즐거거리 풍성



‘군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참신하고 알찬 구성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군산시간여행 축제는 공간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의 주 행사장으로부터 시간여행마을로 이어지는 구영 2길과 구영 6길, 중앙로 일부 구간의 차 없는 거리(차량통제)가 처음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 행사 시간을 야간 10시 까지로 확대하고 초원사건관의 미디어 파사드쇼와 천막극장, 선창가 주점 등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시간여행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퍼레이드’ 구성은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관점과 3.5만세 콘셉트에서 탈피, 1930년대 그 시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아 진행되며 15일과 16일 2회 운영으로 확대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점도 돋보인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신나게 체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야간까지 진행되는 ‘백투더 1930s’를 전면에 내세우

고,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의 미션(쌀의 수탈을 막아라-태극기를 지켜라-독립군을 보호하라)수행과 독립자금 전달, 독립훈장 수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군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에 걸맞은 전시관이 새롭게 선보인다는 점도 크게 달라진 점으로 2017년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시간여행 터널에 담아 보여줄 예정

이다.

또한 역사·문화체험의 축제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계층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신홍동 일복식가옥, 사가와 주택 등 근대역사 건물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고급(유료) 해설 프로그램 ‘이야기 있는 집 투어’ 체험객도 사전 접수로 모집 중에 있으며 최근 들어 근대역사 거리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커피숍과 다양한 체험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930년대의 커피문화를 체험하는 전국 최초 ‘1930’s 카페(coffee)이야기’를 담은 색다른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민이 기획하고 준비해서 운영되는 시민주도 프로그램인 군산 너우스(라디오-토크쇼), 두레다솜 시간여행(청사초롱 시간여행), 마을 연주회 등의 프로그램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문화관광의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는 9월 1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춘포면 착한가게 1호점 탄생

익산, 나눔공동체 실현 도모
‘사랑방’ 선정... 현판식 진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익산시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동현)는 24일 행복나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익산시 춘포면 희망동행 ‘착한가게’ 1호점으로 현판식을 ‘사랑방’에서 진행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바쁜 가게운영으로 봉사와 기부를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를 말한다.

춘포면 착한가게 1호점 “사랑방” 윤현철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따뜻한 정을 주는 착한가게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하는 마음으로 주변 이웃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춘포면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사랑방” 윤현철 대표는 착한가게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독거어른 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여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

춘포면장 권혁은 “춘포면 착한가게 1호점 탄생을 시작으로 많은 자원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군산시, 1인당 최대 300만원

군산시보건소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에 대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이상 33주일까지), 분만관련출혈(분만일부터 분만 이후 6주까지), 중증임신중독증(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산모이다. 지원범위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비 90%를 지원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확대를 행복한 출산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 사업을 통해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72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하면 된다.

/군산=장현기자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 발판 마련

부모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특교세 1억5000만원 지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서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안 공모사업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그 중 2차 발표 평가 등을 통해 군산시를 포함한 최종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산시가 제안한 ‘어린이 행복 부모교육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보건복지부), 군산시(행정안전부) 등 기관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이 1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서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회 방문으로 기관별 부모교육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고 맞춤형, 연계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조정 등의 제안으로 편리성과 효율성 제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경익 복지관광과장은 “부모 교육 통합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주민의견 귀담아

군산 나포파출소 - 주민자치위
수요자 중심 소통의 시간 가져

군산경찰서 나포파출소(파출소장 강용구)는 24일 오전 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을 상대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실제로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경찰관이 순찰을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 순찰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순찰방식인 셈.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나포면사무소에서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순찰 필요 장소, 시간대, 순찰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설문과 등

시에 경찰에서 더 신경써야 할 활동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영근 나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의 어려운 곳을 살피주는 제도인 것 같다. 이런 유익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포파출소는 앞으로 이장단 회의, 금융기관 등 주민모집 장소에 진출하여 이달 말까지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력순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원석 서장은 “우리 마음·말·몸을 낮추어 군산 안전·행복 높이는 게 치프라이즈에 걸맞게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기자

익산시 사회적경제 나눔·홍보행사 개최

31일부터 이틀간 진행

익산시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전북사회경제포럼에서 후원하는 ‘2017년 익산시 사회적경제 나눔 및 홍보행사’가 8월 31일부터 ~ 9월 1일(목 ~ 금,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익산시청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17개 기업이 연계해 익산시 취약계층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기부하고 참여기업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이번 행

사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며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두는 사회적경제를 익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계층에게 기부되는 품목은 자전거, 가스점검, 인도유 설치, 보일러 청소 등이 있으며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선품 선착순 나눔 행사, 사회적경제기업의 음료 시음 및 사회적경제 퀴즈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익산=장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0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